품이 넓은 사람

손 은 기(목사, 충주 엄정교회)

지난 여름, 합천의 한 공동체에서 회원들의 수련회 및 총회가 있었다. 둘째 날 오후에 총회가 있었는데, 기존 회장이 재선되었다. 마땅히 축하할 일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1인 대표체제보다는 공동대표제를 하자는 회칙개정안 토의도 있었지만 부결되었고, 이후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두 후보 중 과반수를 넘은 전임회장이 회칙대로 다시 선출되었다. 현 회장의 재선을 원치 않는 분들이 다른 후보를 추천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그렇게 되었기에, 현 회장의 재임에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었다. 큰 모임도 아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총회였으니, 어색한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 모임을 종료하기 전,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려고 순서에도 없던 난상토론이 진행되었다. 어제 총회 분위기와 현 지도체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문제는 거기까지였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인 협의회 모임이었기에 내심 기대도 했었지만, 공동체적인 새로운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서로의 불편한 마음들만 확인한 채 모임이 종료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았다. 교회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전혀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현실이 불편했고, 갈라진

마음들을 추스리지 못하는 회장의 리더십도 못내 아쉽고 실망스러웠다. 내 마음 속에서는 재선된 회장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갔고, 생각에도 없던 외람된 행동을 감행(?)했다.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은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다.

"...돌아오는 길 내내, 자기 전에도, 새벽기도회 때도, 어제의 총회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자신이 무척 혼란스러웠다.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불편하다. 세상 조직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에서는 마땅히 합법적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다. 하지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 체제가 아니던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는 행동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대표회장에 욕심이 없다면, 과반수라는 득표에 좋아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적 삶을 부르짖고 공동체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고 이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절반의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투표결과에만 안주할 수 있단 말인가? 한심함을 넘어 화가 나는 이유이다. 결코 한 개인이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와 사랑의 일치'라는 협의회 모임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회장 수락을 재고하고 임시총회라도 열면 어떻겠냐고 나름 정중하게 제안을 드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없다. 지금까지 그 모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하다.

지난 10월, 교회가 속한 노회의 가을정기노회가 열렸다. 노회 분립이 확정되어 가을노회는 분립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체제하에 노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나는 분립예배가 있던 청주 B교회에 가서 분립예배 반대시위를 했다. 우리 시찰회와 다른 시찰회 목사님들 30여명이 형평성

에 어긋난 노회분립을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분립예식을 위해 오신 부총회장님께 하소연도 했다.

물론 이미 봄 노회 때 투표로 통과되었고, 총회 때 허가를 받았기에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것은 분명 내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적은 규모로 분립되는 우리 쪽의 '충주노회'는 절박했다(충청노회와 충주노회 교인 수나 재정규모는 7:3정도이다). 분립되는 충주노회는 음성을 포함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인데, 대부분 어려운 농촌교회이고 미자립교회도 많기에, 좀더 형평성 있는 노회분립을 위해서 한 회기를 연장해 재조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분립예배시간을 늦춰 가면서까지 옥신각신 난상토론이 있었지만, 역시 거기까지였다. 점심이후, 그대로 분립예배는 진행되었고 우리는 허탈한 마음으로 새로 진행되는 노회 장소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그날따라 비는 또 왜 그렇게 청승맞게 오는지... 충주로 돌아오는 길, 꼭 셋방살이하다 쫓겨난 가난한 집 아이의 심정이었다. 노회 장소에 붙은 올해 총회 주제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지난 주 아내와 함께, 천 이백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러갔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대이지만 잠시 가짜 왕노릇을 하는 광해군(이병헌 분)이 정말 왕이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역설과 해학이 있었다. 특별히 광해군이 '작은 이들'(정쟁의 희생자인 중전과 처남, 수랏간의 15세 소녀, 최측근의 내시와 도부장)에게 쏟는 인간적 진실함과 따뜻함이 관객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말만이 아니라 제발 작은 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특별히 윗자리 좋아하고 수장되기 좋아하는 분들이여, 작은 자들을 품는 지도자야말로 진정으로 큰 지도자가 아닐까?

돌아 본 농촌목회 7년 8개월

2005년 3월, 태어나 처음으로 충주 땅을 밟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른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엄정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부임한 엄정교회는 충주시 외곽의 엄정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로 크고 육중한 콘크리트 예배당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와서 보니, 예배당 건축 후 부채문제로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70여명의 출석교인이 남은 빚 3억여 원을 갚느라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다. 전임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고생만 하고 떠난 듯 해 후임자로서도 맘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첫 단독목회지, 교인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고, 부채 때문에 경상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열악했다. 첫 열정은 있기에, 부임심방에 새벽, 수요저녁, 주일 아동부, 장년부까지 예배를 인도하다보니 입이 다 부르트고 코피가 터져 나왔다. 큰 예배당에 교회를 제대로 돌볼 사람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목사가 전부 손을 대야 했다. 목사관이 본당 2층에 있어 움직이기 편한 점은 있었지만, 덕분에(?) 관리집사 역할도 내 몫이었다.

힘든 시절을 지나고 2-3여년을 적응하다 보니, 농촌교회와 목회의 현실이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긍정, 부정이 명확하지 않은 충청도 사람들 기질에 적응하느라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다. 힘들게 하는 교인도 있었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려놓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7년여 시간을 지내고 감사하게도, '헌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부임해서 제일 시급한 과제가 건축부채 해결이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았다. 부임 초 재정적으로 힘들 때, 헌당을 목표로 작정헌금을 하자고 했다. 그 동안 작정헌금도 나름대로 했을 터이고, 너나없이 힘들지만 열심히 건축헌금을 하고 있을 때였

다. 그러나 기도 중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며, 이름하여 '오병이어헌금'을 드렸다. 100일 동안 윤번제로 돌아가며 '전 교인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작정헌금을 했더니, 3억원 빚의 십일조 격으로 3천만 원이 나왔다.(우리 집에서도 아이들 돌반지까지 해서 몽땅 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부임 8년째에 이르러 헌당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감개가 무량하다. 무엇보다 영적, 심적,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 목사를 묵묵히 따라와 준 교인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여다보면, 참 기적같은 신비한 일이 숨어있다. 오병이어헌금으로 3천만 원을 드린 후,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 일곱 분을 돕게 되었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매년 다섯 곳이나 후원하게 되었다. 빚에 허덕이던 교회가 돕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된 것이다. 또한 뜻하지 않게, 교회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추진되면서 보상비로 1억여 원이 나왔다. 교인들도 애썼지만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미숙하고 어린 목회자인 나를 성장시킨 것 같다. 내 믿음이 자랐고,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다.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자 했던 목회계획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제자반을 모아서 교육해 보았지만, 두 기수 겨우 하고 3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재생산, 순환구조가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데 걱정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 올해 처음 노인대학을 진행해 30여명이 1학기(3개월)를 진행했는데, 연로한 분들이 많아 참여율도 떨어지고, 역동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 農